

# 全身形態 診斷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김경철\* · 신순식<sup>1</sup>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방제학교실

##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the whole Body-form Diagnosis

Gyeong Cheol Kim\*, Soon Shik Shin<sup>1</sup>,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1:Department of prescription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eui University

We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the whole body form diagno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general form diagnosis is the method to observe the individual physiology and pathology. The phase of thinking, the current and activity of KI, the pattern of general form diagnosis have organic relations with the symptoms. The general form diagnosis is made up the principle of the imaging phase, therefore it must make synthetic union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The general form diagnosis of NAE GYEONG shows the typical phases and it is divided with the sight of YIN YANG and Five-Element. The general form diagnosis of SEOP GAE is practiced the theory of constitution's demonstration before the understanding of symptoms. Then JANG NAM tried the type of constitution's demonstration. The general form diagnosis of DONG MU becomes the diagnostic root of constitution's demonstration in four type constitution theory.

Key words : general form diagnosis, constitution's demonstration, individual physiology and pathology

### 서 론

內經에서 身體의 形態는 內部的 氣작용의 結果가 外部로 發顯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形態 診斷은 人體를 把握하는 望診의 內容으로 內經 이래로 중요시되어 왔으며, 個體生理·病理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辨證施治의 活用에서 核心의인 位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內經 以後 辨證의 活用に 있어서 形態의인 內容을 輕視하고 問診과 切診을 重視하는 傾向性을 보였으며, 一部에서는 辨證施治를 單純한 症狀의 羅列로만 理解하는 問題點을 나타내었다. 다행히 韓國의 韓醫學에서는 內經의 精神을 이어 받아 身體의 形態를 바탕으로 삼는 形象醫學의인 辨證을 活用하였다. 이는 望診을 포함한 四診을 고르게 利用함으로써, 形色脈症의 合一을 추구하는 內經의 個體生理·病理의 辨證施治 精神을 되살린 것이다.

이에 著者は 內經을 중심으로 全身 形態 診斷의 內容을 考察함으로써, 形態 診斷의 意義와 活用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본 론

#### 1. 個體生理 病理와 全身形態 診斷

宇宙 自然을 內省的인 反省과 自己 觀察을 통해 自然의 循環에 동참함으로써 生命의 全體의인 聯關을 고려하는 思惟, 그리고 自然을 觀照와 和解의 地平에서 익으려하는 傳統적인 東洋의 世界觀과 認識論의 중심에는 氣論이 있다. 이 氣論은 전체적이고 상호관련적인 세계관의 결과물이다. 氣論은 물질과 영혼, 육체와 정신 등의 상호 대립적인 영역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엮는 입장이다. 바로 이 점이 差別相의 인간 세계에서 分別的인 差別相을 뛰어넘어 圓融無涯하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理論 體系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生命 역시 氣論의 입장에서 氣의 모임과 흩어짐으로 다루어진다. 우주에 떠도는 氣가 특정한 계기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 組織과 形態를 갖추므로써, 사건과 生命이 태어난다. 이에 生命은 生體 氣로, 事件 事物은 時空間 氣로 이해된다. 즉, 生命, 사건, 사물의 본질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며,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본래 텅빈 없는 것에서 어떤 조건이 알맞게 구비되었을 때, 相對的인 差別相의 物質 世界로 化現되는데, 여기서 중간자의 역할을 氣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內經에서도 兩精이 相搏함에 神인 生命이 된다고 하여,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생명력이 깃들 조건이 만들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kimkc@dongeui.ac.kr Tel : 051-850-8635

· 접수: 2002/06/29 · 수정: 2002/08/31 · 채택: 2002/09/23

어지면 神이 留하여 精氣神 三寶로써 물질 세계에서 육체와 정신이 구비된 생명체의 생명 현상이 일어남을 잘 설명하고 있다. 氣의 思惟에서는 사물, 사건도 역시 氣의 聚散으로 다루어지며, 生命과도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용어이다. 氣의 一元的인 思惟에서 生命과 無生命, 事物과 生命이 서로 연관된 全體속의 서로 다른 에너지의 形態일 뿐, 根源的으로 區分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런 事物과 生命의 全一的인 連繫性은 東武의 事心身物의 四象 醫學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心身은 人間 主體의 內部的인 側面이고, 事物은 人間 客體의 外部的인 側面을 各各 陰陽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事物과 生命은 일정한 에너지 중심이 주변의 感應的인 氣를 응집, 결집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를 朱子學에서도 氣氤, 醞釀 등의 부글거린다는 醞酵의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作用的인 側面에서 動的인 平衡의 循環을 本質로 하는 氣는 純도와 性格을 달리하는 다양한 質의 에너지를 派生한다. 이는 生命 自體의 差異, 生命과 非生命과의 區分에도 마찬가지로 適用된다. 動物 등의 生命體는 自發的인 自己代謝를 행하는 神機之物으로써 外部 環境에 대하여 主體의인 新陳代謝를 營爲할 수 있는 반면에, 植物은 氣立之物으로써 단지 外部 環境에 完全하게 依存하여 變化를 일으키는 관계로 環境 從屬的인 狀態를 發顯하게 된다. 이런 氣의 偏差적인 發顯은 또한 生命 內에서도 動物과 植物의 差異, 動物 內에서도 環境 適應力의 優劣, 그리고 人間 生命力의 卓越함과 個個人의 偏差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差等性·個體性의 根據는 氣의 變化와 作用上의 差異로써, 흔히 氣의 淸濁粹駁·偏全通塞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生物學的으로 神經生理的 發達의 水準에 따른 生物의 位階 設定이라고 하겠다. 즉 具體的, 精神身體的인 構造의 生命體는 나름의 에너지 發顯 通路와 指向性을 가지고 있는데, 知覺과 反應의 差異는 氣가 세련되어 신경망의 조직이 고도화된 것일수록 더욱 유연하여 나타난다. 여기에서 最高의 柔軟性和 敏感性을 發揮하는 열린 生物인 人間은 天地 萬物중에서 最貴한 存在이다. 生命이 氣 작용의 流動的인 不均質의 結合이라면, 人間은 必然的으로 個體의인 差異性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된다. 이런 個人差는 氣의 作用的인 偏差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個人의 特性을 증시하는 個體 生理·病理論의 理論的인 根據가 된다. 先天的인 差異를 인정한 다음에 後天的인 變化의 可能性을 열어두는 것은 朱子學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데, 後天的인 變化는 養生 與否에 따라 發展과 退行, 上昇과 下降에 流動的인 점도 同一하게 보고 있다. 韓醫學의 對象인 人間 生命體는 自發的인 自己代謝 과정을 통하여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관계로, 한의학은 그 시작부터 個體性을 증시하는 個體生理·個體病理의 입장을 가지게 된다. 즉, 宇宙 自然의 氣는 作用的인 側面에서 循環하는 움직임을 特徵으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生命의 氣運도 역시 살아 움직이는 運動을 特徵으로 한다. 이런 見解를 가지고 生命의 一般性 외에 個體의 特殊性을 증시하는 것이 韓醫學의 生理·病理觀이다. 이와 같이 一般性 보다는 個體의 特性을 증시하는 思考는 辨證과 形態診斷의 精神으로 이어진다. 辨證施治는 四診으로 수집되고 八綱으로 정리된 病症의 시스템화 작업으로 인간 個體의 生理, 病理를 인정하는 醫療術이다. 辨證施治는 症狀의 差別性을 인간의 先天體質과 後天生活 및 病因의

差異性에 두고서 疾病의 症候群을 生理病理 體系와 더불어 系統的으로 比類하여 시스템화하는 작업으로써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病證이 疾患에 대한 症狀 爲主의 觀察이라면, 形態診斷은 人間 存在 自體를 爲主로 하는 觀察이 된다. 病證에 비해 形態診斷은 人間이 원래로 所有하고 있는 보다 더 源泉的인 側面을 살펴보는 것으로, 個人의 個體生理·病理的인 側面이 外部로 확연하게 發顯된 結果物인 것이며, 이 점에서 形態診斷의 當爲性이 있게 된다. 따라서 形態診斷은 個體性에 따른 類型的인 觀察도 可能하게 되며, 이는 결국 韓方 特有的인 類型的인 形態 진단에 立脚한 體質論으로 發展하게 된다.

## 2. 心氣形의 相關 關係

人間은 外部 刺戟의 選別 取捨와 選擇的 調節 反應의 能力이 가능하며, 自己 에너지가 發現되는 通路와 樣相을 나름대로 鑄造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小宇宙的 存在이다. 人間 에너지의 生命 現象的인 發顯은 形氣論, 形心論 등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形氣는 東醫寶鑑의 氣裏形表論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으로써, 內在하는 氣裏의 作用으로 外現하는 形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形과 氣는 表와 裏가 되고, 氣의 운동 과정의 결과가 밖으로 나타나서 形態가 이루어진 것이다. 形氣論은 太極이 陰陽으로, 四象으로, 八卦로 분화하는 것을 나타낸 太極圖에 着眼한 것이다. 이 形氣論의 精神은 藏象論과 연계되는데, 藏象論은 取象論의 代表적인 應用 理論으로써 동양의 자연 철학과 임상적인 경험 그리고 取類比象의 觀察 등이 기반이 되어 韓醫學의 기초 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藏象論은 韓醫學의 生理, 病理, 診斷 및 臨床에서 활용되는 辨證論治의 理論的인 根據가 되는 것으로 形氣論의 立場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편, 形心論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르는 氣의 흐름으로 外部 形態의 偏差性이 달라짐을 말하는 것으로써, 마음의 쓸림이 氣의 偏差的인 작용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外部的인 形象을 달리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形心論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本體이며, 보이는 肉體는 쓰임인 用이라는 體用論의 立場과 통한다. 生命活動과 精神思惟活動의 主體는 마음이며, 頭腦와 肉體는 이에 따라 作用하는 發顯處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心中心의 思考는 藏象論의 心爲之主에서도 확연하게 설명되고 있다. 韓醫學은 五臟의 特征적인 機能을 중심으로 인체의 생리, 병리 현상을 종합하여 체계화하여 설명하는데, 이 五種의 機能 體系는 構造力學的으로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五臟의 구조역학적 조화로움에서 心臟은 主君으로 五臟을 통솔하는 地位에 있다. 즉, 君主之官인 心은 血肉之心으로의 心和 神明之心으로의 心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五種機能 系統으로써의 한 系統이면서, 동시에 이들을 주관하는 君主이기도 하다. 이런 內經의 心에 대한 관찰이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더욱 발전하여 主君으로써의 心을 내세워 性情과 臟腑를 통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人體의 生理 病理 作用과 辨證, 體質, 形象의 相互 相關의 기전은 생체 氣의 작용과 흐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內部的인 個人의 特性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氣의 흐름과 作用에 偏差性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外部的으로는 形象으로 發現하며,

이는 또한 發病의 因子로 인한 疾病의 狀態에서도 內部の 氣와 外部의 形象에 立脚한 傾向性을 나타내게 된다. 즉, 마음이 한 생각을 일으키는 傾向性에 따라 氣의 흐름이 달라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個體的인 形態가 偏差의으로 決定된다. 마음의 쏠리는 바가 각기 다르고, 이에 따라 신체 內部的 藏象論의인 偏差性이 外部의 形態인 臟腑, 病證의 傾向性과 맞물리고 있는 것이 韓醫學의 個體 生理, 病理를 바탕으로 하는 形態診斷論이 된다. 形氣論과 形心論을 종합하여 볼 때, 氣는 心과 形의 中間子로서 作用하며, 內部的인 心의 움직임에 따라 氣의 흐름이 다르게 결정되고, 그 結果가 身體 形態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個人의 心相·氣의 작용과 흐름·外部의 形態·질병으로 나타난 病證 등은 系統的인 樣相으로 發顯하며, 人間과 疾病의 全一的이고 有機的인 觀察을 위하여 理論的으로는 個體生理·病理觀이 必要하며, 臨床的으로는 形態區分의 當爲性이 診斷에 必然的인 事項이 되어 神形色脈症의 合一을 追求하게되는 것이다. 이는 아울러 誤導된 辨證 活用의 限界性 극복의 방안이 되는 것이다.

### 3. 取象과 辨證 그리고 形態診斷

取象法은 抽象法또는 取類比象이라고도 하며 이는 陰陽, 五行, 四象, 八卦 등의 속성에 따라 사물의 성질을 대비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세상 만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분류 기준법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면 모두 귀납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取와 抽는 뽑아내어 가진다는 뜻으로, 取象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 내면의 질서인 象數理를 눈에 보이는 形으로 推論 把握하여 경우에 맞게끔 잘 應用하는 것을 말한다. 取象法은 類類相從의 類似性 選好의 自然的인 傾向性을 그의 원리로 삼아 生命, 事件, 事物을 對比 分類하는 方法이다. 取象法은 한의학학을 위시한 동양 학문의 응용적인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었으나, 전통적인 동양 학문의 학습 방법이 나태해지면서 다소간의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았으며, 근래의 신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중요시 되고 있는 연구 방법론이다. 동양의 학문은 形 중심인 서양의 환원주의적인 접근방식보다는, 直觀을 통하여 사물이나 현상의 象을 파악함으로써 전일적인 유기체를 전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살아있는 그 자체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양의 학문은 象을 깨닫는데 一心精力으로 魂神의 努力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取象法은 이치를 탐구하는 의학 공부의 출발점 뿐만 아니라, 실제 活用적인 辨證施治의 단계에서도 연계된다. 변증은 병인이 무엇이며, 신체에서 어떤 이상을 초래하였으며,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음양오행론적으로 종합 구성하는 인식체계이다. 변증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표현은 음허증 등으로 간단하다. 그 이유는 證 자체가 하나의 象이기 때문이다. 환자 정보의 수집 단계인 四診, 수집된 정보의 음양적인 분석단계인 八綱의 과정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는 단계가 바로 辨證인데, 의사가 病症을 관찰하여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취하여 精神氣血, 五臟六腑, 六氣 등의 생리 병리이론과 대비 분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辨證은 象의 하나로서 그 속에 이치를 담고 있으므로 치료방법도 이에 맞추어 결정되는 것이며 取象法의 活用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形과 象은 하나의 本

體의 兩面性으로써, 사물이나 현상이 밖으로 형태를 이루어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되는 것을 形이라 하고, 분열하여 氣化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象이라고 한다. 따라서 육체적, 물질적인 動靜은 形으로 나타나고 精神的, 機能的인 動靜은 象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사물 內部的 數理가 氣를 통하여 象과 形으로 그의 조짐을 나타내는데, 이런 시초적인 조짐을 幾微라 하고, 그 조짐이 현실로 形象化되어 세상에 완연히 드러난 것을 機微라고 이른다.

形象論에서 形의 意味는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뜻하여 물질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象이란 表象, 象徵, 形象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象의 개념과 원리는 周易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유기적인 全一體에서 내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외부로 드러나서 형상을 이루게되며, 形이란 象에 비하여 변화의 외부적인 표현으로 감각을 통해 인지되는 것이고, 象이란 변화의 근본적인 원리에 의하여 그와 관련된 조짐이 출현하는 것으로 方以類聚하고 物以群分하는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다.

形과 象의 관계는 形과 氣의 관계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기화의 결과로서 형상을 보기 때문이다. 만물은 끈임없이 변화하여 기화작용을 항상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형과 상에 항상 존재하게 된다. 단지 인간의 지각에는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능력의 편차가 있으므로 인식의 정도가 차이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의 인식보다는 상의 인식이 중요하며, 象은 인식의 주체에 따라 판단이 틀려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상을 파악하는 주체를 군자, 성인 등의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의 파악은 천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천지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군자나 성인이 사물이나 현상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직관의 방법을 활용하여 象을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取象이 形象의인 思惟이면서 동시에 全一的인 思惟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取象論의 입장에서 辨證 形象과 관련하여, 한국의 한의학에서는 內經의 정신을 이어받아 東醫寶鑑으로부터 東醫壽世保元에 이르기까지 形象의인 측면의 의학적 전통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形과 象의 사이의 관계를 의학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논한 매우 중요한 업적이다. 內經의 氣裏形表의 이론을 중심으로 形과 象, 形과 氣 사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辨證施治의 活用に 應用하는 것이 형상의학이다. 이는 개체 생리, 개체 병리를 중시하여 질환을 인간과 질병 요인의 결합으로 보는 한의학의 특징으로써, 辨證論과 더불어 임상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분야이다. 형상의학은 全一的인 人體를 陰的인 물질과 陽的인 정신, 陽的인 기능과 陰的인 구조로 관찰하는 陰陽論의 통합적인 醫學이다. 여기는 陰의 形에서 陽의 象으로의 방법, 陽의 象에서 陰의 形으로의 관찰 방법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陰인 形을 기준으로 陽인 象을 파악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발달하여 形態學的인 모양의 특징을 기준으로 내부의 氣의 대사 작용을 유추하고 판단한다. 이의 뿌리는 內經의 全身 形態의 望診法 및 類型 體質論에서 유래하였으며, 辨證과 形상의 기본적인 연계를 제공하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그 후 이런 精神은 조선의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의 형상의학적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았다. 상한론과 금원4대가 이래로 내려온

중국 한의학에 비하여 명확한 體質 形象의인 辨證의 방법으로 인간과 질환을 이해하고 임상에 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형상적인 辨證을 시도한 東醫寶鑑의 形氣論의인 형상의학과 類型 形象의인 辨證을 시도한 東武 선생의 形心論의인 형상의학은 바로 한국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東醫寶鑑은 도교 철학과 內經의 이론에 의거하여 내부의 精氣神의 작용을 內在하는 氣로 보고서 이의 외부적인 발현 현상을 形體와 動態의 形象으로 보는 形氣論의인 입장이고, 東醫壽世保元은 유교의 이론에 의거하여 性情을 통괄하는 心의 작용을 내재 氣로 보아 이의 발현 현상을 형상으로 여기는 形心論의 입장이다. 東洋의 學問 體系는 全一의이고 形象의인 思惟인 象의 파악이 관찰 대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의학에서도 구조와 기능을 통합하는 上位 概念인 形象을 중시하는 全一의인 構造力學的인 類機能體系의 形象 醫學을 구성하게 되어 形象과 辨證의 全一의인 合一을 추구하게 되었다.

#### 4. 內經에 나타난 全身形態 診斷의 원리와 방법

內經에서는 全身의 形體와 動態의 觀察를 통하여 臟腑, 氣血, 邪正의 상태를 파악하는 全身 形態 望診法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는 人體의 形態 望診의 內容을 중시하고 있는 증거이다. 人體는 內外 統一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內部 臟器에 疾患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반응 현상이 臟腑 中心의 系統의인 體系에 따라 體表에 反映되는 것이다. 全身의 外部에 들어난 形態를 관찰함으로써, 內部 臟器의 堅脆, 氣血의 盛衰, 邪正의 消長을 아는 것이다. 全身의 形態는 靜的인 形體의 관찰과 動的인 動態의 관찰 內容으로 구성되어, 形態의 陰陽的인 觀察를 이룬다. 이는 患者 形體의 強弱·肥瘠과 動靜姿態를 통하여 진찰하는 것으로서, 陽主動, 陰主靜과 陽化氣, 陰成形의 理論에 根據하여 全身形態과 病證의 診斷에 活用하는 것이다. 內經에 나타나는 全身形態 診斷의 分類는 크게 두 가지 類型으로 區分된다. 하나는 陰陽說에 根據한 것이다. 사람의 形態, 性情 등이 陰陽氣 稟賦의 不同에 根據한다는 것으로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의 五分類로 나뉘어 生理와 特徵 등을 說明하고 있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先天的인 稟賦된 不同의 各種 形體를 五行學說에 根據하여 木火土金水의 五類로 歸納 整理하고서, 다시금 五音의 太少의 屬性으로써 上下左右의 再區分으로 二十五 種類의 同中求異의 類型을 求하는 것이다. 이같은 體型 區分의 內容은 상당히 복잡하나, 一目瞭然하게 整理하는 歸納 綜合的인 陰陽 五行의 方法으로 再構成이 가능한 것이다.

##### 1) 陰陽論에 立脚한 全身形態 診斷

먼저 陰陽 多少의 五態人은 靈樞 通天篇에 나타나는 內容으로 類型 體質論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陰陽 多少에 의한 全身 形態 類型의 區分을 內經에서는 心理的인 측면과 形態的인 특징에 따라서 五類型으로 보고 있으며, 각 類型 別로 特性, 陰陽 多少, 形態를 다루고 있다. 太陰之人의 陰陽 多少의 生理는 多陰而無陽하여 營血濁, 衛氣滿하여 陰陽氣의 순환이 不和하고 筋肉이 弛緩하고 皮膚가 肥厚하다. 全身의 形態는 거뭇거뭇한 모양으로 黧黧然하며, 깊이 생각하여 고개를 들지 않으며, 건실 장대하게 임하고, 마치 곱사등이처럼 오금이 구부러져 있는 듯하여, 膝膞

若屈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이는 첫 만남 등에서 知人의 判斷이 어려운 관계로 陰陽 五形態人의 其態不同하고 其筋骨氣血이 各 不等한 外觀上의 鑑別을 통한 形態診斷을 活用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情報를 認識할 수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少陰之人의 陰陽 多少는 多陰少陽하여 六腑중에서 胃臟이 小하고 中上의 脾가 小하고 大腸이 大하여 下의 腎이 大하여 六腑를 중심으로 不調한 상태로 血氣가 쉽게 脫敗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全身의 形態는 소탈한 듯하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본래는 침울하고 조용하나 일이 생기면 떠들석하고 가볍게 된다. 걸을 때는 내려다보는 편이다. 太陽之人은 多陽而少陰하며, 전신의 형태는 軒軒하여 득의양양한 모양이며, 儲儲하여 태연하고 용납하는 태도이다. 몸을 뒤로 젖혀, 결국 무릎이 구부정한 형태로 仰腰挺腹의 형상이 된다. 少陽之人은 多陽少陰하며, 經脈이 작고 絡脈이 크다. 전신의 형태는 가슴을 펴고 몸을 뒤로 젖혀 하늘을 보고 서 있는 품이며, 걸을 때는 상체를 흔들고, 몸을 뒤로 젖힌 관계로 팔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陰陽和平之人의 特性은 행동과 거처가 인정하고, 함부로 두려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순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좇으며, 더불어 싸우지 않고 때에 맞게 처신하며, 존귀한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며, 편안하고 커서 다스리지 않아도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고 하여 君子로써 平人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陰陽論에 立脚한 五態人論은 體形氣像을 중심으로 全身形態를 觀察하는 內容으로 構成되며, 전신형태에 대한 類型 구분의 정신은 한의학의 연구방법론인 取象에서 비롯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 五態人論은 氣의 運動 概念인 態로써 太少陰陽人의 氣 多少를 다루고 있는 관계로 靜的인 形보다는 動的인 態를 上位概念으로 삼고 있다.

##### 2) 五行論에 따른 全身形態 診斷

五形人과 二十五人은 靈樞 陰陽二十五人篇에 나타나는 內容으로 五行學說에 근거하여 稟賦가 不同한 各種의 體型을 五行 類型으로 歸納한 理論이다. 五行 性質의 사람을 다시 手足의 陰陽 經脈의 上下 血氣 상태에 따라 二十五種의 類型으로 구분하고 외견상의 특징인 皮膚色, 體形, 態度, 時令適應에서 그 사람의 性質을 診斷하는 方法이다. 五行의 氣運을 각각 溫全하게 받은 사람이 있으며, 또한 偏僻되게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게 되므로, 四股의 左右와 上下의 經脈 氣血 多少에 따라 다시금 구분한 것으로서 바로 同中求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오형의 全偏之分으로 구분하는데, 五型의 偏者가 各各 4이니 左之上, 右之上, 右之下, 左之下를 말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五臟 中心으로 五類型을 판단한 후에, 三陰經으로 五類型의 全分을, 그리고 三陽經의 外見上의 특징으로 五行 偏者를 구분지워 二十五人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木形人은 皮膚色이 蒼色이고 小頭로 長面하여 直 四角形의 容貌를 나타내며, 大肩背하고 直背身하며. 身小手足한 形態이다. 火形人은 皮膚色이 赤色이고 銳面, 小頭하여 뾰족한 역삼각形의 容모를 나타내며, 廣胛肉滿하고 好肩背脾腹하고 小手足한 形態이다. 土形人은 皮膚色은 黃色으로 圓面, 大頭하고 美肩背하며 大腹하고 美股脛, 小手足하고 多肉하여 上下相稱한 形態이다. 金形人의 皮膚色은 白色이고 方面으로 얼굴이 모가 나

며, 小頭, 小肩背, 小腹, 小手足으로 骨輕한 형태이다. 水形人의 皮膚色은 水之色黑이므로 黑色으로 面不平하여 얼굴기복이 있거나 혹은 곡면이다. 大頭이고 廉頤하여 턱이 모나거나 혹은 廣頤하고, 小肩, 大腹, 動手足, 發行搖身, 下尻長한 形態이다. 이처럼 五行論에 입각한 全身形態 診斷은 體形 위주로 관찰하는 陰陽論에 입각한 全身形態 診斷과는 달리, 주로 容貌詞氣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面色과 體形 특징을 부수적으로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五行人은 다시 三陽經의 氣血 多少 狀態에 따라 二十五人으로 區分되는데, 該當 經絡의 主要 部位와 關係를 가진다. 各 經絡의 血氣의 狀態에서 血氣盛한 경우는 털이 길고 수가 많아 美長하며, 血少氣多의 경우는 수가 적으며, 血多氣少의 경우는 털이 짧으며, 血氣皆少의 경우는 없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三陽經 各各의 경우를 살펴보면, 土形人에서 土形之全은 足太陰의 敦敦然한 여유롭고 침착한 形象이며, 土形之偏인 足陽明經의 左右上下는 左足陽明之上이 婉婉然하여 몸가짐이 아리답고 맴시가 있는 태도로 委順貌, 有委曲之義하여 곡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右足陽明之上은 樞樞然하여 듩직하고 믿음직한 태도로 圓轉貌, 有拘守之義, 如樞轉之持重하며, 右足陽明之下는 兀兀然으로 마음이 한곳으로 써서 동요하지 않는 태연자약한 태도로써 獨立不動貌 如平陸之安夷也하며, 左足陽明之下은 坎坎然하여 힘이 실린 묵직한 태도로써 深固貌, 持重之義하다. 이 足陽明經의 觀察에 必要로 하는 足陽明經의 血氣 狀態의 上部 觀察部位는 口下의 鬚와 口傍이며, 下部는 陰毛와 足部의 溫冷이다. 만약 血氣皆少하면 口술 주위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이는 脾胃의 血氣不充이나 脾胃를 많이 사용하여 虛勞됨을 나타내는 징조로 볼 수 있다.

木形人에서 足厥陰은 木形之全으로 佗佗然하여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태도로써 安重之義, 筋柔遲重之貌 雍容自得之貌하며, 木形之偏인 左足少陽之上은 遺遺然하여 유연한 태도로써 謙下之態 如枝葉之下垂, 柔退貌, 如有遺失, 然行之不驟而馴하며, 右足少陽之上은 推推然하여 진보적이고 전진적인 태도로써 前進貌, 上進之態, 如枝葉之上達하며, 右足少陽之下은 隨隨然하여 순종한 태도로써 從順貌하며, 左足少陽之下은 括括然하여 방정하고 긴장한 태도로써 體之挺直, 正直之謂 如木方正貌하다. 여기서 必要로 하는 足少陽經의 上部는 髯과 爪에서, 下部는 脛毛와 外踝에서 관찰된다. 火形人에서 手少陰은 火形之全으로 核核然하여 알차고 성실한 태도로써 火不得散而結聚爲形이며, 火形之偏인 左手太陽之上은 肌肌然하여 피부가 얇아 膚淺貌, 肌肉充滿之義이며, 右手太陽之上은 鮫鮫然하여 돌격적인 태도로써 踴躍貌하며, 右手太陽之下는 愉愉然하여 기쁨이 지나친 태도로써 喜悅之態이며, 左手太陽之下는 支支頤頤然으로 지레 자득, 짐작하는 태도로써, 自得貌, 支持之義, 垂下之義 上下之相應하다. 여기서 必要로 하는 手太陽經의 上部는 髯과 面에서, 下部는 手腕 皮肉의 後外 부위에서 관찰된다. 金形人에서 金形之全은 手太陰의 敦敦然한 단호하고 침착한 태도로써 堅實貌, 敦重之義하며, 金形之偏에서 左手陽明之上은 廉廉然하여 모가 난 태도로써 稜角貌, 如金之潔而不汚하며, 右手陽明之上은 監監然하여 무엇을 빠뜨리고 간과하여 살피는 듯한 태도로써 多察貌, 如金之鑑而明察也하며,

右手陽明之下는 嚴嚴然하여 장중하고 엄숙한 태도로써 莊重貌, 不敢肆也하며, 左手陽明之下는 脫脫然하여 깔끔하고 깨끗하여 뒤가 없는 태도로써 灑灑貌, 無累之義 如金之堅白하다. 手陽明經은 上部는 口上의 鬚에서, 下部는 腋下毛와 手魚肉에서 관찰한다. 水形人에서 水形之全은 足少陰의 汗汗然 혹은 汗汗然한 멋대로 하는 태도로써 濡潤卑下之態, 如川澤之納汚也하며, 水形之偏에서 左足太陽之上은 安安然하여 답답할 정도로 안일한 태도로써 定靜貌, 水性雖流而爲器所局 則安然不動하며, 右足太陽之上은 頰頰然하여 뺨에 나타날 정도의 득의만만한 태도로써 得色貌, 其盈滿如兩頰하며, 右足太陽之下는 潔潔然하여 외모가 청결하고 고고한 태도로써 淸淨貌, 如水之淸潔也, 獨行之義也하며, 左足太陽之下는 紆紆然하여 우회적인 태도로써, 曲折貌 有周旋之義 紆洄之態 如水之洄旋也하다. 足太陽經은 上部는 眉毛와 眉面의 간주름에서, 下部는 跟踵에서 관찰하는데, 氣少하면 不潤皮膚하여 眉毛가 無華彩而枯하고 面多小理하다. 이처럼 五臟과 三陰經, 三陽經의 氣血 狀態의 外見上 特徵을 바탕으로 類型 區分이 되며, 皮肉筋骨과 皮毛의 狀態는 臟腑 經絡의 大小 長短에 依據한 類型 區分의 重要한 觀察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五行人을 기초 삼아 形色 相得의 與否가 결정되는데, 形色은 形體와 皮膚色의 五行 屬性和 相靨의 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形體와 皮膚色의 關係를 보면 木火土金水 形이 靑赤黃白黑 色으로 定해져서 本形 本色 相得한 形色相得者는 富貴大樂하며, 一致하지 않는 경우는 “得其形인데 不得其色”으로써, 五行의 相靨 規律로 說明한다. 形體 五行 屬性이 皮膚色 五行 屬性을 靨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木形의 體型에 土의 黃色이 나타나는 등으로 形勝色者이다. 그리고 皮膚色 五行 屬性이 形體의 五行 屬性을 靨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木形의 體型에 金의 白色이 나타나는 등으로 色勝形者이다. 形色 相靨의 反常 현상이 발현하고 아울러 年忌를 만나서, 만약 이를 感受하면 病을 免하지 못하고 치료에 조금이라도 疏忽히 하여 失誤하는 則 病勢가 甚히 念慮스럽게 된다.

## 5. 葉桂와 章楠의 全身 形態 診斷

### 1) 葉桂의 全身 形態 診斷

內經의 形態 體質의인 辨證論의 精神은 淸대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에서도 淸然하게 나타나며, 後代에 그의 體質辨證論의 정신을 연구하는 論文까지 있을 정도이다. 葉桂는 治法의 總論으로 體質의 陰陽을 區分하여 寒熱虛實의 治療를 하였으며, 診斷의 大法은 먼저 體質이 강한지 약한지를 밝히야 한다고 하여 臨床에서 體質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고 있다. 患者의 얼굴색이 蒼赤色이고 몸이 여위고 살이 단단하고 뭉친 자라면 體質이 陽이 속하여 濕熱이나 濕火症을 앓을 것이고, 얼굴이 희고 살이 쪼으며 무른 자라면 體質이 陰에 속하여 寒濕症에 걸리게 된다고 하여 體質을 病機와 더불어 陰陽으로 區分하고 있다.

이와 같은 形態 診斷에 立脚한 體質辨證의 重要性에 대한 葉桂의 認識은 邵新甫가 臨證指南醫案의 虛勞辨證에서 “葉桂가 활용한 뜻을 헤아리려면 환자의 體質이 陰인지 陽인지를 區分하는 것을 要領으로 삼고 上部 中部 下部에서 나타나는 證에 着想해야 한다”고 註를 달고있는 것에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린 葉桂의 體質辨證을 探討한 黃煌은 “葉桂는 漢醫 特有的 八綱 臟腑 氣血 病因 等 辨證의 基礎 위에서 各種 體質 類型을 歸納 하였다. 이 類型에는 生理 機能上의 特性도 있고 더욱 主된 것은 病邪를 받는 性質, 疾病의 轉化 方面에서도 各自의 規律이 있다” 고 보면서 葉桂의 體質論을 木火質, 濕熱質, 肝鬱質, 陰虛質, 陽虛質, 脾弱質 등으로 區分하였다. 이들의 形態의인 特徵을 보면 木火質은 蒼赤色으로 몸은 마르고 살은 단단하며 화를 잘내고 움직이기 좋아하며, 濕熱質은 풍성한 몸과 기름기 있는 얼굴로 눈이 충혈되기 쉬우며, 肝鬱質은 정신이 맑지 못하고 胃脘部가 불쾌하며, 陰虛質은 몸이 마르고 입과 목구멍이 건조하거나 손발 바닥에 열이 나며, 陽虛質은 몸이 풍만하고 살색이 희고 脾胃가 성글며, 脾弱質은 몸이 마르고 피부는 누런색으로 疲勞 倦怠가 쉽게 온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은 臨證指南醫案의 肝風, 吐血, 泄瀉, 虛勞, 遺精, 咳嗽, 脾胃, 暑, 肝火, 便血, 鼻, 咽喉, 產後 等の 여러 部分에서 고르게 관찰되고 있다. 이외에 葉桂는 陰陽虛 體質, 血虛 體質, 氣虛 體質, 精氣不足 體質, 多濕 體質, 稚年純陽 體質, 뚱뚱한 체질, 마른 체질, 苦寒藥을 먹을 수 없는 체질, 熱藥을 먹을 수 없는 체질, 본래 튼튼한 체질, 液虧 體質 等を 區分 하고 主로 病理 體質과 여기에 該當하는 藥物의 使用에 對해서 論하였는데, 이런 內容도 역시 많은 病症 部分에 걸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葉桂는 臨床에서 나타나는 病症을 肌肉柔白, 色蒼形瘦, 面長身瘦, 形軀豐盈, 肌柔色黯 등의 形態 特徵을 함께 參考하여 稟賦된 體質의인 特徵과 病機를 결정짓고 診斷과 治療法 및 藥物 使用을 確立하였다. 이처럼 葉桂는 病證 把握에 必須의인 體質 區分의 項目으로 身體 形態 特徵, 肌肉의 堅結과 柔軟, 얼굴색과 얼굴형, 脈象 등을 짚았으며, 이들을 첫째, 深度있는 辨證施治를 위한 體質 把握의 資料로 둘째, 疾病 轉變 規則을 把握하는 資料로 셋째, 正確한 用藥法으로 副作用을 最小化하는 方案으로 活用한 臨床의인 意義가 있다. 이런 그의 形態 診斷에 立脚한 體質辨證論은 비단 慢性的인 雜病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溫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히 濕溫病에서 患者의 體質을 중시하는데, 얼굴색이 희고 창백한 것은 많은 경우 평소 몸의 陽氣가 모자라서 다시 濕邪에 감염되면 더욱 쉽게 지치게 되고 심하면 陽氣를 손상시켜 病의 後期에는 陽氣衰微의 虛寒證이 나타나고, 患者의 얼굴에 靑蒼色이 나타나면 많은 경우는 평소 몸이 陰虛火旺한 사람으로 濕熱의 病邪에 감염된 뒤에는 비교적 쉽게 燥가 되고 陰이 손상되므로 가령 熱이 물러나고 몸이 차진 경우에 虛寒證으로 오인해서 溫補劑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평소 陽氣가 旺盛한 사람은 濕邪가 쉽게 熱로 바뀌고 대부분 病은 陽明胃로 귀속되어 임상에서 熱이 濕보다 중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평소 陰盛한 사람은 痰濕이 안에서 쌓이고 陽氣가 衰弱한 것에 치우치고 濕邪에 감염된 후에 熱로 바뀌는 과정이 비교적 느리고 많은 경우에 太陰脾에 머물러 임상에서 濕이 熱보다 중한 상황이 나타나며 病程이 발진함에 점차로 熱로 바뀌어 濕보다 熱이 중한 轉變을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濕熱病의 發病 面에서 內外合邪를 말하면서 病變 過程中에 사람의 體質의인 差異에 따라 다른 轉化를 하여 臨床 類型이 달리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 2) 章楠의 全身 形態 診斷

葉桂의 形態 診斷에 根據한 體質 辨證論의 內容은 특히 暑病의 病證을 陰陽證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病證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患者의 體質의인 特性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章楠의 醫門棒喝의 條例, 六氣陰陽論에서 잘 나타나며, 더불어 人身陰陽體用論에서는 形態診斷을 통한 類型體質論까지 登場하고 있다. 그는 條例에서 河間의 ‘六氣皆從化火’를 說明하면서 사람의 體質이 同一하지 않아서 感受된 邪氣가 비록 같더라도 病變이 다르다는 점을 우선 제시하고서, 暑의 說明에서 暑는 火와 濕의 二氣가 합한 것으로 그 證에 陰證 陽證이 있고 ‘中暑는 陰證이 되고 傷暑는 陽證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火에 치우친 것은 陽證이 되고 濕에 치우친 것은 陰證이 되며, 體質이 강하면서 火가 많은 자는 陽證이 되고 體質이 약하면서 濕이 많은 자는 陰證이 됨을 알지 못한 연유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暑邪와 暑病에 대한 說明은 六氣陰陽論에서 보다 分明하게 나타난다. 人體가 暑邪에 感觸되었을 때, 만약 타고난 體質에 火가 많으면 暑邪가 火를 좇아 燥로 변화하고 타고난 體質에 寒이 많으면 暑邪가 寒을 좇아 濕으로 變化하니 이는 邪의 陰陽이 人體의 陰陽을 좇아 변한 것이라고 六氣를 邪로 論하는 것과 病으로 論하는 것의 區分이 必要하며, 邪氣가 人體를 損傷시킬 때 사람의 타고난 體質에 따라 病의 狀態가 變化하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外感과 內傷으로 畏寒하거나 發熱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으로 因하여 變하는데 虛實 陰陽이 서로 原因이 되고 영향을 미쳐서 縱橫으로 뒤섞이니 治法도 마땅함을 좇되 어느 한쪽에 執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六氣陰陽論 附問答에서는 仲景의 白虎湯이 단지 淸火할 뿐이고 去濕하는 藥이 없으니 곧 暑에 반드시 濕이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물음에 答하기를, 暑氣와 暑病은 구분해야하는데 暑氣는 火와 濕이 서로 合하여 이루어지나 暑氣가 人體를 損傷시키는 지경에 이르면 또한 사람의 타고난 體質을 좇아서 變하는데, 體質에 火가 많으면 暑는 火를 좇아 燥로 變하며 바로 이런 燥와 火가 합한 氣가 바로 白虎湯의 證이 된다. 만약 타고난 體質에 寒이 많으면 暑는 寒을 좇아 濕으로 變할 것이니 寒과 濕이 合한 氣에 白虎湯이 마땅하지 못하고 大順散 淸香飲같은 辛熱한 方劑나, 六和湯 正氣散같은 溫燥한 方劑도 있으며, 桂苓飲같은 濕과 火를 淸消하는 治法도 있어 仲景의 모자람을 補充한다고 하여 暑病에서 人體의 體질에 의한 疾病의 變化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處方까지 提示하고 있다. 그리고 仲景의 “太陽中熱者 暍是也, 身熱而渴 白虎加人參湯主之”의 條文은 太陽病 中熱證에 身熱 渴症이 난다는 것으로 火가 旺盛하여 燥로 변한 暑病이 되고, “太陽中暍 發熱惡寒 身重而疼痛 其脈弦細攣遲”의 條文은 濕이甚한 暑病으로 仲景이 處方을 적지 않았던 것은 後世에 글이 毀損되거나 缺如된 것으로 淸暑益氣湯이 適合하다는 見解에 同調하면서, 病이 사람의 타고난 體質을 좇아 變化하고 더불어 暑라는 하나의 氣가 火와 濕이 서로 合하여 이루어지게 된 점도 역시 分明하다고 하여, 다시 한번 사람 體質에 따른 病의 變化를 強調하고 있다. 이런 內容은 人體 중에 陰이 旺盛하다면 寒이 많아서 熱藥을 받아들일 수 있고 陽이 旺盛하다면 火가 많아서 涼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陽이 虛하면 쉽게

濕이 생기고 陰이 虛하면 쉽게 燥로 變하니 또한 자연히 同一하지 않으며, 그래서 六氣가 流行하는 것과 病이 되는 것은 本來當然히 區別해야하나 사람의 體質이 각기 달라서 그 變化는 다 밝힐 수 없다고하여 韓藥의 應用에까지 이어지는 活用法을 主張하며, 사람의 타고난 體質에 陰陽의 強弱이 同一하지 않은 것으로 因하여 邪氣가 感受될 때 輕重이 같지 않으므로 病의 變化가 가지런하지 못한 이유를 재삼 說明하고 있다. 暑病의 陰陽證은 暑邪를 이루는 火濕의 外邪의인 要因 외에 人稟體多火하여 燥火로 化하는 陽證인 경우, 人稟體多寒하여 寒濕으로 化하는 陰證의 경우로 구분하여 사람의 稟賦된 體質에 따른 變化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稟賦體質의 상세한 내용이 內經에 잘 나타나며, 아울러 丹溪先生이 임상적으로 약간을 비추었고, 청대 名醫인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의 여러 곳에서 잘 나타남을 強調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서 章楠은 治病의 要領은 먼저 마땅히 사람의 體質의 陰陽, 強弱을 살피야 하는데, 이 살피는 方法의 포인트는 그 사람의 形態, 氣象, 色澤, 脈象임을 말하고, 아울러 陽旺陰虛 體質, 陰陽具盛體質, 陰盛陽虛體質, 陰陽兩虛體質 등으로 葉桂의 臨證指南醫案에 흠여져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여, 스스로가 內經과 葉天士의 形態 診斷에 立脚한 體質辨證論 精神을 이어받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傷寒傳經論에서 地方과 土質 및 古今의 六氣 變化에 適合한 治療의 說明에서 仲景의 麻黃湯을 예로 들면서 處方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타고난 體質과 邪氣의 輕重을 판단함으로써 그 마땅한 與否를 살피는 것을 말하면서, 臨床에서 辨證이 힘들어서 暗記에 의한 方法으로 이루어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런 論旨는 論景岳書에서 六氣의 變化와 사람의 先天的인 源流에 대한 理解 不足을 言及하면서, 景岳의 지나친 扶陽論 偏執에 對한 批判에 活用되기도 하였다.

#### 6. 李濟馬의 全身 形態診斷

東武는 그의 醫學的인 淵源을 靈樞에 두고서 “略得外形窺지만 未得臟理”한 醫療 水準의 發展的인 方案으로 孔孟儒學의 理論을 援用함으로써,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얻어 四象體質論을 著述하였다. 靈樞 通天篇에 나타나는 내용은 東武 李濟馬의 四象體質論 思考의 시초가 되어 類型 體質論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內經과 東醫壽世保元의 연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한의학은 원래로 氣의 自發的인 自己 代謝를 중시하여 생명체를 관찰하는 관계로 個體의 특수한 개체 생리, 개체 병리를 인정하고서 의학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한방 생리와 병리의 특징을 규정한 개념으로써, 한의학에서 체질과 변증의 당위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탁월한 식견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韓醫學은 원래로 體質醫學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病因을 합친 辨證施治의 당위성과 방법론이 성립된 것이다. 이로 볼 때 東武先生의 類型 體質論은 辨證의 活用化의 효과를 增加시킨 것으로서, 개체 생리와 병리의 類型化 및 辨證의 類型을 가져온 더욱 더 발전한 한의학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個體의 特性을 기반으로 하여 診斷과 治療의 類型化를 시도한 의학 정신은 內經과 東醫壽世保元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는 한 측면이 된다고 하겠다. 人間의 體質的인 類型을 先天的인 稟賦된 바에 따른 臟局長短의

四類型에 의거하여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나누면서, 各 體質辨證에 體形氣像, 容貌詞氣의 形態診斷을 性情, 病證의 把握과 함께 必須的인 事項으로 간주하였다. 아울러 內經에서 藏象論的인 立場에서 五臟의 하나로 取扱한 心의 位相을 中央之 太極으로 格上하여 取扱하고 나머지 四臟의 大小 關係의 偏差로 四象體質을 區分하였으며, 心의 內部的인 發顯相인 性과 外現的인 發顯樣相인 情의 役割로 生體 氣의 흐름이 影響을 받게되며, 이에 따라 外部 全身 形態의 樣相이 달라진다는 形心論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 즉, 心의 性情 作用에 따른 臟腑 大小에 의해 呼吸出納의 氣 움직임과 體形氣像의 形態論的인 樣相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全身의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의 四焦病證이 形成된다는 觀點이다. 四象體質論의 形態診斷의 內容을 살펴보면, 少陰人은 腎大脾小한 臟腑性理로 開放之氣가 納積之氣에 비하여 보다 優越하여 氣運이 下陷하는 特性으로 體形氣像이 膀胱之坐勢盛壯 而胸襟之包勢孤弱하며, 四焦의으로 臍下가 寒冷한 病症을 나타낸다. 少陽人은 脾大腎小한 臟腑性理로 納積之氣가 開放之氣에 비하여 보다 優越하여 氣運이 橫升하는 特性으로 體形氣像이 胸襟之包勢盛壯 而膀胱之坐勢孤弱하며, 四焦의으로 胸膈이 烈火한 病症을 나타낸다. 太陰人은 肝大肺小한 臟腑性理로 吸聚之氣가 呼散之氣에 비하여 보다 優越하여 氣運이 放降하는 特性으로 體形氣像이 腰圍之立勢盛壯 而腦脊之起勢孤弱하며, 四焦의으로 小腸이 窒塞如霧한 病症이 나타난다. 太陽人은 肺大肝少한 臟腑性理로 呼散之氣가 吸聚之氣에 비하여 보다 優越하여 氣運이 直升하는 特性으로 體形氣像이 腦脊之起勢盛壯 而腰圍之立勢孤弱하며, 四焦의으로 胃脘이 散割如風한 病症이 나타난다.

이처럼 東武는 全身形態 診斷에 立脚한 四象體質辨證을 重要하게 다루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주의할 점을 체질별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太陽人의 體形은 원래 변별하기 어렵지 않으나 人數가 稀罕하여 最爲難辨이라 하였으며, 少陽人은 體形이 上實下虛하고 胸實足輕하고 剽銳好勇하며 人數 또한 많아서 四象人中에 最爲易辨이나 少陽人이 或 短小靜雅하여 外形이 恰似少陰人者가 있으니 病勢寒熱을 잘 관찰하여 仔細執證함으로써 잘못된 치료를 방지한다고 하였다. 太陰人과 少陰人에서도 體形이 或略相彷彿하고 難辨疑似하여 觀其病證함으로써 必無不辨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少陰人 體形이 矮短하나 또한 長大者가 있을 수 있으며, 太陰人 體形이 長大하나 역시 矮短者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전신 형태에 입각한 체질변증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기에 동무는 明知其人과 明知其證을 반드시 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人物形容을 仔細商量하고 再三推移하여 만약 迷惑이 있다면 參互病證함으로써 明見無疑한 후에 用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體質辨證論的인 全身形態 診斷의 정신은 溫病에서도 나타난다. 東醫壽世保元의 太陰人 病論에서 病症과 함께 素面色靑白한 경우와 素面色黃赤黑者로 구분하여 寒熱證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葉桂의 觀察과 同一 線上에 있는 것으로 辨證, 體質, 形象의 相互觀察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韓方 診斷과 치료에서 望診이 第一의 位置를 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에 따라 切診과 問診을 중심으로 삼는



現今의 韓方 診斷 方案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있음을 알게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으로 하는 辨證과 形象, 體質診斷의 合一인 의학 체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결 론

### 참고문헌

全身 形態 診斷의 意義와 活用に 對한 研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다.

全身形態 診斷은 개체성을 중시하는 개체생리·병리의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心相·氣의 작용과 흐름·全身形態의 樣相은 病證과 함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辨證施治와 마찬가지로 全身形態 診斷은 事物의 屬性에 따른 形象을 파악하는 取象의 원리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辨證施治와 形態診斷은 종합적인 合一을 이루어야만 한다. 內經에 나타난 全身形態 診斷은 類型的인 樣相을 띠며, 이는 體形氣像을 위주로 관찰하는 陰陽論의 인 시각과 容貌詞氣를 중심으로 삼는 五行論의인 입장으로 양분된다. 葉桂의 全身形態 診斷은 病證 파악에 우선하는 體質辨證論으로 행해졌고, 이를 이어받은 章楠은 體質辨證의 類型化를 시도하였다. 東武의 全身形態 診斷은 보다 종합적으로 발전된 체계화를 이룩한 四象類型體質論에서 體質辨證의 診斷의인 根幹이 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全身形態 診斷은 問診, 切診 중심의 단순한 辨證施治의 限界性을 극복하는 代案으로서, 望診을 중심

1. 권영규 외1인 공역, 五運六氣學 解說, 법인출판사, 1996.
2. 김중환 김달호 옮김, 의학봉갈, 소강출판사, 1997.
3. 신순식, 섭계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4. 윤길영, 동의학 방법론연구, 성보사, 1983.
5. 윤길영, 동의입상방제학, 명보출판사, 1985.
6. 전경진, 氣의 思想,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7.
7. 한형조, 氣의 哲學-생명 인간 건강에 대한 동아시아적 독법, emerge 새천년 2000.
8. 홍원식 편찬, 정교황제내경영추,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서울, 1985.
9. 홍원식 편찬, 정교황제내경소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서울, 1985.
10. 吳國定, 內經診斷學, 대성출판사, 1983.
11. 鄧鐵濤 外 7人, 中醫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台北, 中華民國 1972.